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인순이·김건모·MC몽

'열린 음악회' 합동 공연

인순이, 김건모, MC몽이 각 세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합동 공연을 꾸몄다.

세 가수는 16일 오후 8시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KBS 1TV '열린음악회-송년특집 2008 빅쇼' 녹화에서 한 무대에 올랐다.

'열린음악회' 관계자는 "인순이는 40~50대, 김건모는 30~40대, MC몽은 10~20대를 겨냥해 캐스팅했다"며 "세대와 장르가 다른 가수들이지만 하나의 공연으로 조합이 잘 이뤄졌다"고 말했다.

인순이의 히트곡 '밤이면 밤마다', MC몽의 '180도'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날 녹화에서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과 '핑계', MC 몽의 '천하무적'과 '서커스' 등 히트곡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이날 녹화 분은 21일 오후 5시35분부터 85분간 특집으로 방송된다.

GONCERT

"인기 캐릭터와 유행어는 여기 다 모였다."

KBS 개그 콘서트(이하 개콘)가 또 한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시청률 21.8%(TNS미디어코리아)를 기록해 주간 시청률 순위 4위, 예능프로그램 2위를 차지했다. 한때 시청률이 9% 대에 머물며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유행어를 양상, 상승세를 타며 500회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개콘의 인기요인을 분석해본다.

개그콘서트 이유있는 인기

요절복통 아이디어 철철 넘칠 뿐이고~

〈윤형빈〉

개성 있는 캐릭터와 유행어

개콘에는 얼마전 막을 내린 '대화가 필요해'의 신봉선·김대희를 비롯해 '달인'의 김병만, '봉숭아학당'의 윤형빈·안상태·한민관, '할매가 뿔났다'의 장동민·유세윤, '황현희PD의 소비자고발'의 황현희 등 시청자를 몰고 다니는 인기 개그맨들이 많다.

이들 스타급 개그맨들은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유행어를 쏟아내며 '개콘'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봉숭아 학당'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캐릭터는 "난 ~뿐이고"란 유행어를 만들어 낸 안상태 기자와 톱스타들에게 거침없는 독설을 내뿜는 왕비호. 특히 신예 윤형빈은 '왕비호'라는 비호감 캐릭터로 전국민에게 이름을 알리며 스타 개그맨 반열에 올랐다.

또 '달인' 김병만은 16년간 오로지 하나에만 매달려 온 다양한 달인 캐릭터를 연기,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라는 말을 히트시켰으며 현재 드라마와 광고까지 진출해 종횡무진 활약중이다.

이밖에 연예기획사 사장으로 나오는 광주 출신 한민관도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라는 유행어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거 누가 그랬을까?"를 유행시킨 '황회장' 황현희, '악성 바이러스'의 '싼마에' 김대희 등도 인기몰이 중이다.

세태를 반영한 패러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는 물론 범죄까지도 개그 소재로 활용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거지 가족의 요절복통 절약 아이디어로 큰 웃음을 주고 있는 '로열 패밀리'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 눈길을 끄는 코너. 가업이 동냥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TV드라마 속 상류층 가족 이야기처럼 꾸며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

상조 전문 CF를 패러디한 '도움상회'는 지난 14일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 연루 사건을 풍자, "타자가 타짜가 되려니 힘드시죠"라며 해당 선수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또 조손(祖孫) 세대의 불협화음을 다룬 '할매가 뿔났다', 말은 많지만 소통이 안 되는 '박대 박' 등 소통 부재로 파편화된 인간관계를 이야기한 시사성 코너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시사 프로그램과 다른 방송사의 히트 작품을 패러디한 '황현희PD의 소비자고발', '악성바이러스'까지 자유로운 소재 선택으로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안상태〉

〈소비자 고발〉

〈로열 패밀리〉

12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과속 스캔들	62만2천433	161만6천933
2	트와일라잇	45만7천5	60만3천864
3	오스트레일리아	33만7천8	44만3천94
4	미인도	8만2천890	230만1천409
5	순정만화	4만4천703	72만6천664
6	트로픽 썬더	3만8천542	5만1천596
7	1724 기방난동사건	3만4천146	27만6천823
8	쏘우V	1만6천148	14만4천163
9	4요일	1만3천877	2만497
10	007 퀀텀 오브 솔러스	8천253	226만85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너는 내운명	KBS1	34.7
2	에덴의 동쪽	MBC	28.0
3	일요일이 좋다	SBS	25.1
4	개그콘서트	KBS2	21.8
5	내사랑 금지옥엽	KBS2	21.3
6	유리의 성	SBS	21.0
7	가문의 영광	SBS	20.1
8	바람의 나라	KBS2	18.4
9	해피선데이	KBS2	18.1
1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SBS	17.8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미이라 3 : 황제의 무덤	판타지
2	맘마미아!	뮤지컬
3	쿵푸팬더	애니메이션
4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	액션
5	원티드	액션
6	핸콕	액션
7	데이큰	액션
8	영화는 영화다	액션
9	인디아나존스:크리스탈해골의 왕국	액션
10	아이언 맨	SF

〈자료제공:으뜸과 버금〉

가요

순위	제 목	가 수
1	총 맞은 것처럼	백지영
2	붉은 노을	빅뱅
3	마이 스타일	브라운아이드걸스
4	어제보다 오늘 더	김종국
5	노바디	원더걸스
6	레이니즘	비
7	이런 여자	이수영
8	러브119	케이윌
9	러브 스토리	비
10	매력쟁이	린

〈자료제공:멜론〉